보도

최근 5년간 전학대회 성사 단 3번뿐 … 누구의 책임인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서울】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총학)에서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을 해도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혹은 참석했더라도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이다.

총학 회칙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려야 했던 10회의 전학대회 중 실제 안건 의결까지 진행된 것은 3회뿐이다. 소집이 이뤄졌던 7번 중 2번은 재적인원의 50%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조차 되지 않았다. 정족수를 충족해 개회할 수 있었던 5번 중 2번은 회의 도중 대표자들이 자리에서 이탈해 안건의 심의·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우리학교 학생회 대의기구 전학대회, 학운위, 중운위

전학대회와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우리학교의 대의기구다. 전학대회는 총학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학의 활동방향성과 사업계획,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확운위는 총학의 의결, 운영기구로, 총학의 활동방향성과 사업계획, 사업보고를 심의해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중운위는 총학의 최고운영기구로서 제반 사업을 검토·조정·심의해 확운위, 전학대회,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즉, 중운위와 확운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학대회의 하위기구다. 성원 역시 전학대회가 가장 많으며 이어 확운위, 중운위 순이다. 따라서 각 기구가 갖는 대표성의 정도도, 다뤄야 할 안건의 중요성도 모두 다르다.

그동안 총학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전학대회가 개회되지 않거나 도중 이탈로 표결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임시전학대회로 전환해 안건보고만 진행하거나 안건을 확운위, 중운위 등 다른 의사결정기구에 위임했다. 지난 2015년 1학기 전학대회에서는 개회 후 참석자들의 이탈로 표결정족수에 미치지 않자 그 자리에서 임의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143/157) 하위 의사결정 기구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확운위로 위임됐다. 2015년 2학기 전학대회는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자 임시전학대회로 전환된 바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도 못 채워 열리지 못해

이처럼 전학대회가 개회되지 않을 경우, 전학대회에서 다뤄지기로 예정된 안건을 다른 의사결정기구에 위임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학칙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서울캠 총학 회칙 제 12장 제 3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회칙 제 6장 제 33조 확대운영위원회의 조항 역시 5항 8호에서 '전학대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그 방식은 언급돼 있지 않다.

또한 임시전학대회에 대해 회칙 제 32조 7항 2호는 '임시전학대회는 의장 또는 재적인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기전학대회 이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정기전학대회를 임시전학대회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하지만 그간 임시전학대회는 정기전학대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출석한 대표자들에게 보고안건을 전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체 되어왔다. 2012년 9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의 전학대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총학생회에서는 전학대회 성원 미달 시 '관례대로' 임시전학대회로 진행하거나 확운위에 의결을 위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례적인 임시 전학대회 대체 '주먹구구식' 진행으로 비판 대상

실제로 이번 학기 전학대회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관례에 따라 임시전학대회로 대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석자 중 김종휘(통번역학 2011) 군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건을 보고하냐"라며 "총학은 그동안 회칙에도 없는데 보고안건을 진행해왔냐"고 항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총학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전학대회에서 정족수를 못 채운 경우가 4번이나 되므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회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군은 "그동안 전학대회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관례대로 처리해왔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히 하위기구에 의사결정 업무를 위임할 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학대회가 수년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례'라는 명목 하에 처리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안건을 확운위에 위임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고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전학대회를 여는 것도 그들의 절차적 편의를 위해 자행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관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칙이 필요하다. 회칙은 총학이 임의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 5개년 전학대회 출석률 50%채 되지 않아

전학대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총학의 임의로 임시전학대회로 진행하거나 하위의사결정기구에 안건을 넘기는 것 못지않게 대표자들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표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대표해 총학의 업무를 감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전학대회 출석률은 최근 5년간 평균 5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10월 4일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3학년 대표는 "전학대회 모집 공지를 하루 전에 받아 타 행사와 겹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의 부학생회장은 "암묵적으로 3·4학년 대표는 전학대회에 안 가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신문은 그동안 수차례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표자들의 문제를 언급해왔다. 지난 2009년, 그간 성원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전학대회가 3년 만에 열린 것을 지적한 데 이어(서울캠 3년 만의 전학대회 … 열띤 질의 오가/대학주보 온라인, 2009.4.3) 이듬해인 2010년 1학기 또다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학대회 '불발', 대표자 책임감 부재에 불만 제기돼/대학주보 온라인, 2010.4.30) 뿐만 아니라 2013년(전학대회, 총여 비대위 인준 부결 중도 이탈로 주요 안건 의결 못해/대학주보 온라인, 2013.4.7), 2015년(회의 중 성원 이탈… 자치회비 분배 의결 못한 '전학대회'/대학주보 온라인, 2015.4.3)엔 대표자들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탈해 심의·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하면서 확운위에 위임하는 행태에 대해 권위와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전학대회 성원 부족은 우리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다.

"총학생회 - 전학대회 상호 견제와 균형 이뤄야"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총학생회가 행정부라면 전학대회는 일종의 국회이고 두 기구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7학년도 총학을 결정하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단 한 번도 전학대회를 개회하지 못한 현 총학에게, 그리고 차기 총학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본부에게도 전학대회 성원 문제는 중요하다. 전학대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창구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6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7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 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 2016년 9월 30일(금)~11월 8일(화) 17:00
- 대 상 : 교수, 교직원, 개인 및 단체
- 시상분야 :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3. E-mail : pr@khu.ac.kr
- 선정절차 :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 여 식 : 2016년 12월 中 (Magnolia 2016-1부 목련회의)시 시상
- 문 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실